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북도, 설 명절 맞아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 추천... 보험금 75% 이상 보조 지원·상해 치료비 5000만원 등 보장

전북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선물을 추천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낙상·절단·쓰쓰가무시병 등 농작업 중 발생하는 질병이나 재해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일반형·산재형으로 나뉜다.

작년 새로 출시된 산재형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업인을 위해 보장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휴업(입원)급여 최대 6만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간병급여 최대 5,000만원, 상해·질병치료급여 최대 5,000만원 등의 혜택을 준다.

작년 새로 출시된 산재형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업인을 위해 보장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휴업(입원)급여 최대 6만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간병급여 최대 5,000만원, 상해·질병치료급여 최대 5,000만원 등의 혜택을 준다.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1만2,598명이 증가하여 9만3,006명이 가입했고, 6,115명 농가가 보험금으로 93억5,700만원을 받아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전북도는 올해도 9만명 이상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 50%에 대하여 도비 등 25% 이상 지원하고 있고 일부 농협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일반 I형의 경우, 96,000원 중 75% 이상



팔레넬시스 만개

30일 오후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실에서 연구원이 활짝 핀 국산 난 팔레넬시스(호접란)의 생육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을 보조해 줘에 따라 농업인은 나머지 25%인 최대 2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1회납으로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매년 명절 때마다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을 무엇으로 해야 할 지가 고민이라면, 농촌에 계신 부모님을 위한 효도선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적극 추천 드린다”며

서 “특히, 본격적인 영농에 앞서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비탈길, 고령화 등 농업환경이 열악한 만큼, 조기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조합장선거 40여일 앞으로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40여 일 앞둔 30일 전주시 NH농협은행 전북지역본부에서 직원들이 선거법 관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전북선관위, 설 명절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봉사단체인 ‘공명이 사랑나눔회’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독거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3곳 등에 총 240만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명이 사랑나눔회’는 2007년도에 결성된 이래 꾸준히 연탄배달·불우이웃 성금전달 등의 나눔·봉사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한편, ‘공명이 사랑나눔회’ 정진석 회장(전주시완산구선관위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불우이웃에게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명이 사랑나눔회’는 FROM-5운동(나부터, 작은 일부터, 가까운 일부터, 쉬운 일부터, 지금부터)을 통해 소외된 불우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봉사단체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공무원노조, ‘사랑 나눔 행복 더하기’ 성료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빈식)은 “사랑 나눔 행복더하기” 일환으로 전북도청 직원 본인이나 가족 중 큰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료 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누기 위

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을 위해 성실하고 묵묵히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7명의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청원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64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김진성 기자

4·16연대 “황교안 수사대상... 대선 여론조사 배제돼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범죄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자를 여론조사 명단에 올리는 것은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

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진정공문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광주지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자로서 여러 차례 수사가 의뢰된 자”라며 “범죄 혐의 수사 대상자가 각 언론·방송사와 여론조사기관에서 대선 후보군으로 다루지는 것은 국민의 공익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올해에도 도내 곳곳 크고작은 스포츠대회 ‘풍성’

올해에도 전북 곳곳에서 크고작은 체육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30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 2019 국내·외대회 주요일정에 따르면 국제대회를 비롯한 국내대회가 속속 개최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별로 보면 먼저 오는 4월 군산에서는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열리고 남원에서는 ‘남원국제코리아 오픈 롤러대회’가 예정 돼 있다.

마라톤대회의 참가규모는 약 1만 2000명이며, 롤러대회는 19개국 1700명이 참여한다.

5월에는 도내 14개 시·군간, 전국 시·도간의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

4월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남원국제코리아오픈 롤러

5월 전북도민체전·어르신생활체전·전국소년체전

6월 남원국제검도·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대회 개최

는 대회가 연이어 열린다.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가 5월 10일부터 사흘간 고창 일원에서 열리고 선수와 임원 등 약 2만명이 참여하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25일부터 28일까지 익산 등 도내 전 시·군에서 펼쳐진다.

특히 소년체전의 경우 학생 선수의 가족과 친인척 등이 대거 전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다시 찾고 싶은 전북’

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도 정읍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6월에는 남원오픈국제검도대회와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대회가 예정 돼 있고 7월에도 남원국제비탁추환상선발대회와 제12회 한·중청소년스포츠교류가 진행된다.

하반기에도 국내 또는 도내 규모의 체육대회가 펼쳐진다.

전북체조경연대회가 입실에서 9월에 열리고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는 10월 무주에서 개최된다. 또 도내 ‘최강 팀(클럽)’을 가리는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이 11월2일부터 이틀간 전주 일원에서 열린다.

이밖에도 육상과 축구 등 43개의 도지사기(배) 대회가 연중 도내 곳곳에서 개최된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올해에도 우리 고장에서 다양한 체육대회가 펼쳐지게 된다”며 “선수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종 대회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